

새로운 영화세상, DVD TOWER가 연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 그는 영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영화광이다. 집에 흠뻑이터 시설까지 구축하고 일주일에 평균 2~3편의 영화를 본다. 그는 주로 아파트 단지 앞 상가 내 비디오DVD 대여점에서 대여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최근 이 대여점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해버려 영화 빌릴 곳이 없어 졌다. '이제 옆 동네까지 가서 DVD를 빌려 봐야 하는 가?' 난감해 하던 김모씨. 어느 날 회사 근처 편의점을 들어갔더니 요상하게 생긴 'DVD 타워' 라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닌가. 김모씨는 이 제품이 DVD를 무인 대여하는 자판기라는 것을 알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신 영화 등 다양한 타이틀을 제공하고 이용방법도 쉽고 편리하다. 그날 당장 요즘 인기를 끄는 최신 영화 2편을 대여하고 '휘파람' 을 불며 편의점을 나섰다.

GS 편의점 120여 곳에서 무인 DVD 대여



김씨가 편의점에서 발견한 제품은 아트서비스社의 DVD 타워라는 DVD 무인대여기이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부터 GS25 편의점을 대상으로 120여대 제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DVD 타워는 190편의 DVD를 보유하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DVD 대여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편의점의 특성상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쉽고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제품이다.

고객이 DVD 타워를 통해 DVD를 대여하려면 먼저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카탈로그를 보고 작품번호를 확인하고 대여버튼과 작품 번호를 누른다. 그러면 DVD와 영수증이 발급된다. 보통 대여료는 1박 2일에 2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으며 주택지와 상업지역에 따라 대여료 및 대여일수는 차등 적용된다.

DVD 반납은 먼저 회원카드를 통과시키고 반납버튼을 누른다. 그런 다음 연체료가 있으면 연체료를 납부하면 된다. 무인대여기이기 때문에 반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편견은 오산이다. 시스템 상으로 이 문제에



완벽하게 대응,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3일 이상 업체자는 설치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7일 이상의 업체자는 본사에서 문자서비스 및 해피콜을 보내는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 15일 이상 업체자는 분실 정산을 하게 되는 데 정산금은 핸드폰 요금으로 과금된다. 또 DVD타워는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계라 번거롭다는 선입견만 없다면 금방 숙달이 될 수 있다.

현재 설치된 GS 25 매장에 설치된 제품 중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남 로케이션으로 하루 10여 편 이상 대여가 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해 강북의 이용률은 적은 편이다. 강남의 경우 DVD플레이어가 많이 보급이 된 반면 강북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주로 보급된 영향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아직 기계를 낫설어 하는 편이지만 꾸준히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아트서비스의 관계자는 “한번 기계를 사용해 본 사람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DVD 타워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

국내 유인 비디오 DVD 대여점의 현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대여점들이 하도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 비디오, DVD를 빌려 보려면 먼 동네로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 비디오DVD 대여점 수는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8,500개에 달하던 비디오 DVD 대여점이 지난해 4,000여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가 줄다 보니 대여점이 없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불법 다

운로드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웬만한 영화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즐기는 게 일상화 되어 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진데다 불법 복제 DVD물까지 대량 유통이 되는 상황이다.

아트서비스는 이러한 시장 환경이 DVD 대여기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인 비디오, DVD대여점의 감소로 인해 DVD 무인대여기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곳곳에 DVD 무인대여기 설치가 된다면 유인 대여점의 공백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DVD 대여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점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이다.

여기에 영상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는 콘텐츠 업체라는 점도 과감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이다. 사실 DVD 자동대여기는 지난 2003년부터 SWP신우전자, 윤익씨앤씨 등의 업체가 신시장 창출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아트서비스는 이런 과거의 실패가 시장이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었지만 다양한 영화 콘텐츠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요인이 컸다고 보고 있다.

아트서비스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이기에 이 부분에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 2006년 아트서비스는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발족하여 DVD, VHS의 제작 유통 배급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한달에 보통 2편씩 지금까지 총30여 편의 국내 영화 DVD, VHS를 제작했다. 국내 흥행신기록을 세운 ‘왕의 남자’ DVD, VHS도 이 회사가 제작 유통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파주 예술마을 헤이리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민영촬영 스튜디오를 운영 해오고 있다.

자체 출시되는 타이틀 이외에도 DVD 제작 유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신 영상 콘텐츠 확보가

유인 대여점 급감이라는 대외환경도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또 아직은 경쟁사도 없는 블루오션의 영역이다. 여기에 앞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기존 영상물들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신속히 이루어진다. 신작이 출시되면 바로 구비가 되고 제공하는 영화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인대여기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국내 출시되는 타이틀의 90% 이상을 포함을 한다. 타이틀 구비는 소니픽처스 같은 메이저 배급사들과 사업 제휴를 통해 대여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배급사의 제품들은 직접 구매를 해 구비를 한다. 190개의 타이틀을 항상 알차게 구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DVD 배급사와의 밀접한 제휴를 통해 콘텐츠 확보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따라 오기 힘든 장점이다.

새로운 영화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



아트서비스의 초기 DVD 무인대여기 사업은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주된 타깃 로케이션으로 삼고 있는 GS편의점에는 올해 안에 150대까지 제품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편의점 로케이션이 가장 운

영효율이 높은 로케이션으로 보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과 매장 내 “삽인삽” 형태로 운영할 수 있

다는 점이 장점이다. 편의점 입장에서 DVD 타워를 설치할 경우 연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DVD를 빌리러 온 사람이 기타 필요한 물품을 자연스럽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편의점 로케이션 이외에도 슈퍼마켓, 도서전문 대여점, 구내매점 등의 로케이션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임대료를 통한 로케이션 전개가 주가 되고 있지만 경쟁력 높은 로케이션의 경우 판매를 적극 늘려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더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진행할 계획으로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 확대로 DVD 무인대여 시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점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인 대여점 급감이라는 대외환경도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또 아직은 경쟁사도 없는 블루오션의 영역이다. 여기에 앞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기존 영상물들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트서비스는 DVD 타워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DVD자동대여기 시장이 성공적으로 틈새시장에 안착을 한 것처럼 국내 시장 역시 큰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영화세상을 열겠다는 아트서비스의 도전이 마치 흥미진진한 영화 한편처럼 펼쳐지고 있다.

■아트서비스:02-2001-8894, www.dvdtower.co.kr